

특집

서울대 신임 교육부처장 인터뷰

서울대 신임 교육부처장 인터뷰

- 임철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특집

1. 2012년 7월에 교육부처장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신호로 생각됩니다. 우리 대학의 첫 교육부처장으로서 교육부처장직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기존의 우리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 부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연구중심대학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 대학이 법인화된 이후에 기초학문교육에 대한 외부의 우려 등과 맞물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육부처장직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차원에서 보자면 교육부문은 교육부총장님, 교무처장님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관련 영역의 일을 맡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이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일들

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 문제라든가 혹은 교수님의 교수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의 고민 같은 것들이요.

앞으로 교육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본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끌어 가는 방식을 보통 취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형식을 통해 교수 및 전문가 집단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내용을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상에서 얻은 사항들을 2013년 이후부터 좀 더 구체화시키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대학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민혜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부교수

2. 교육부처장의 임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교육부처장의 역할은 우리 대학의 교육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비전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으로 융합인재 양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연계전공, 연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어떤 전공에는 학생들이 계속 많이 오고, 어떤 전공에는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함으로써 연계전공, 연합전공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어떻게 융합인재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잘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육 개선을 더욱 활성화하고, 아울러 훌륭한 교수님을 우리 대학으로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교육원의 강의전담교수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강의전담교수가 어떻게 하면 더 강의를 잘 하게 할 것인가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시간강사의 강의 질의 문제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시간강사가 좋은 강의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어떻게 하면 좋은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등이 그렇습니다. 교육부처장의 역할은 교육과 관련한 이러한 사항들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아끌어가고, 중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대학이나 다른 나라에서 교육 부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좋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교수님들에게 전하고, 교육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이벤트나 세미나 등을 CIL을 통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3. 교수학습개발센터(CTL)의 센터장을 겸직하시게 되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서 앞으로 CTL의 변화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 기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하위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CIL 역시 우리 대학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CIL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파악해야겠지요. 저는 CIL이 대학 차원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CIL 업무가 교육지원, 학습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금부



터는 이것 이외에도 대학의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이 창의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면, 학생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학생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은 무엇인지 등을 통해서 저희 센터 수준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또한 저희 대학의 비전과 관련 있는 ‘지식 공동체’의 측면에서 저희 센터의 eTLL이 일정 부분을 담당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TLL의 온라인 환경이 오프라인의 여러 활동을 보완하면서 변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IL이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할 수 없는, CIL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서비스를 잘 한다고 하는 다른 대학들, 비단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 역시 벤치마킹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이에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자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단과대학(학과) 맞춤형 교수지원 서비스

각 단과대학(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수법을 전공특성에 최대한 적합하게 반영하여 교수법 워크숍, 교수전략 및 방법 등의 교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단과대학(학과) 맞춤형 교수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상] 단과대학 및 학과

[지원] 각 단과대학(학과)에서 요구한 주제에 적합한 교수법 전문가의 워크숍 & 컨설팅(강의촬영 및 수업상담)

[문의]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880-5387)